

## 제43회 파리에어쇼 동향

파리에어쇼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긴 에어쇼로서 19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3회를 개최하였으며, 1949년 18회 에어쇼부터 곡예비행을 시작하였다.

특히 자국 항공우주산업발전에 힘입어 발전해 왔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실외 전시장과 상설전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위주의 에어쇼를 개최하고 있다.



제43회 파리에어쇼가 전세계에서 40여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 르브르제 공항에서 개최되었다

### 전세계에서 40여개국 1,765개업체 참가

파리에어쇼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프랑스 르브르제 공항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이번 파리에어쇼는 살레 458개를 포함하여 실내 전시장이 51,514㎡로 프랑스가 649개 업체가 참가하여 최대를 이루었으며, 미국 404개 업체 참가로 양국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도 영국 167, 독일 98, 러시아 43개 업체 등 전세계 40여개국에서 1,765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실외 전시장은 29,662㎡의 면적에 200 여대의 항공기가 전시되었다. 참가 항공기중에는 K8 중국-파키스탄 합작 제트훈련기, Proteus 고고도 연구기, Beriev 200 터보팬 다목적 항공기, Antonov70 수송기, L159 훈련/경전투기, ERJ135 Regional Jet, Rah66 Comanche헬기 등이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

행사 전날인 6월 12일 초청인들과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개막식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하였으며, 퍼블릭데이 기간중인 18일에는 수상이 참석하여 오찬을 제공하는 등 프랑스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파리에어쇼는 일요일인 13일에 퍼블릭데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시작하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비즈니스데일로, 19일과 20일 양일간은 다시 퍼블릭데일로 운영하여 주말은 일반인들 위주로 행사를 운영하였다. 관람객은 약 8만 7천명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22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매일 12시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은 40여종의 항공기가 시범비행을 보였으며 20여종은 탑승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반에어쇼와는 달리 별도의 곡예비행은 없이 주로 참여 항공기들의 기동시범을

위주로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퍼블릭데이에만 스카이 다이빙쇼와 글라이더 곡예비행이 있는 정도였다.

이번 에어쇼의 특징은 작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의 전시 참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참가하여 아시아 국가의 항공우주분야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은 제품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살레를 운영하였으며, 중국 항공기의 지상전시 이외에도 K8 제트훈련기가 시범 비행에 참가하였다.

## 주요 참가업체의 동향

이번 파리에어쇼는 각종 전시회사 뿐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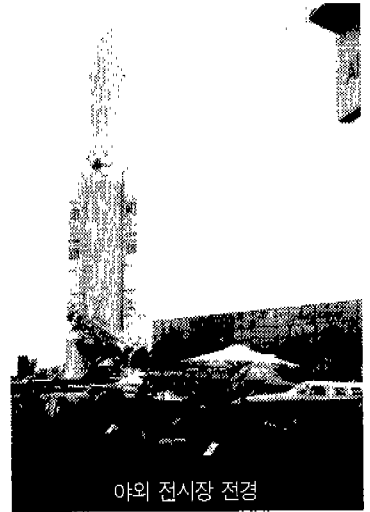
BAe는 동유럽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스웨덴 Saab사와 함께 폴란드, 헝가리, 체코 공화국과 같은 나라에 Saab사의 Gripen 전투기의 판매 활동을 시작했으며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유럽 지역에 대해서 자사의 호크 훈련/경전투기의 판촉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BAe는 노후된 L-29, L-39 훈련기의 대체 수요가 있는 슬로바키아를 호크기의 첫 번째 잠재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군용기 부문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는 NATO의 신형 전술수송기를 위한 3파전이었다. 첫 번째 주자는 C-130J로서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형 C-130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공군은 이미 신형 C-130J를 주문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자는 예전에 FLA라고 불렀던 에어버스사의 A400M으로 C-130보다 월등한 화물탑재량을 장점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다. 세 번째 주자는 러시아의 AN-70으로 안토노프 설계국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통해 전술수송기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안토노프 설계국의 수송기들은 전장피해에 대한 생존력이 높고 신뢰성이 뛰어나면서도 튼튼한 항공기로 평가 받고 있다.

민항기 부문에서 보잉과 에어버스 양대 업체의 수주전도 치열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로 상당수의 물량이 취소되긴 했지만 두 회사 모두 몇 가지 신기종을 선보이며 수주에 힘썼다.

보잉의 106인승급 쌍발 717기는 허브공항과 군소공항을 이어주는 단거리 노선용으로 주로 홍보를 하



야의 전시장 전경

고 있지만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717기가 신형기라고 해도 기본설계는 40여년 전의 DC-8에서 발전한 MD-80/MD-95시리즈를 기초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보잉의 115인승급의 737-600과 시장규모가 겹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717과 경쟁하는 기종은 에어버스의 107인승급 A318로서 A319의 단축형인데 일각에서는 에어버스의 베스트셀러였던 A320의 축소판이라고 보기도 한다. A318의 처녀비행은 2001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에어버스에서는 고객 항공사들에게 그때까지 신형기 도입을 미뤄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리에어쇼에서 가장 큰 활동을 한 회사는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아닌 엠브레어사였다. 엠브레어는 1주일의 행사기간 동

안 66억 달러의 수주를 올리는 쾌거를 올렸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Intercanadian 항공사로부터 ERJ-145 지역 여객기 여섯 대의 확정수주와 여섯 대의 옵션수주도 포함되어 있다.

엠브레어사는 지역여객기 시장에서 캐나다가 엠브레어사의 최대 경쟁자인 봄바르디어사의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되어 있다. 엠브레어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70에서 100인승 규모인 ERJ-170 시리즈의 개발을 발표했는데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가장 작은 항공기라도 100석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 한국관 운영 및 성과

지난 97년 한국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한국로스트왁스만이 참가하여 전시 및 해외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올해는 총 153sqm의 전시면적에 Open Type 형태의 공동 전시관을 마련하여 기아중공업, 삼성전자, 한국로스트왁스와 우리협회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확보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아중공업은 UH-60헬기 및 F-16 전투기에 장착되는 항공기 착륙장치와 전차 탑재용 포를 전시하였고, 삼성전자(주)는 최대



실의 전시장에는 200여대의 항공기가 전시되었다

4,960kbps의 무선전송속도를 가진 차기 VHF 무선 전송 장비 (SHRT-21)와 자체고장진단 기능을 갖춘 전자식 교환기 (TTC-95K), 전차장열 상조준경 (KCPS) 등을 전시하였으며, 한국로스트왁스공업(주)는 가스터빈엔진용 블레이드와 터빈로터 등의 항공기 엔진 부품 등 70여종의 정밀주조 제품을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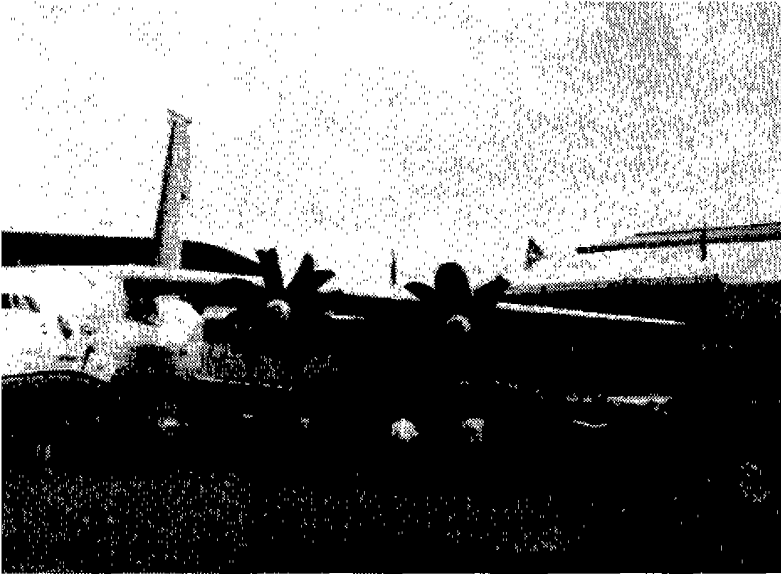
한편, 우리협회는 파리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한 11개 회원사 카다로그 전시 및 상담을 하는 등 통합



우리협회와 기아중공업, 삼성전자, 한국로스트왁스는 한국관을 운영하였다

마케팅 활동을 하였다.

또한 짝수년 격년제에서 홀수년 격년제로 바뀐 서울에어쇼 홍보를 위하여 행사 기간중 총 362개 업체를 방문하여 서울에어쇼2001 소개 및 전시참가를 요청하였으며,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항공우주협회는 외국 전시업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에어쇼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행사기간중 프랑스항공우주협회(GIFAS) 살레에서 개최된 제3차 한·불산업협력회의에서는 양국 항공우주산업 현황소개와 회의 참석업체들의 자사제품 소개 및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등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재 설립 추진중인 항공우

주 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도 에어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법인 설립추진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에어쇼는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 산업체들이 일정기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다. 이번 파리에어쇼에 참가한

우리기업들도 자사의 제품소개 및 비즈니스 거래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아중공업(주)는 영국의 GKN Westland와 총규모 1,200만 달러규모의 Lynx 헬기 착륙장치 수주와 연간 20만 달러에 달하는 창정비 착륙장치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프랑스 메시아다우티사와 500만 달러에 이르는 Airbus 민항기 물량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FHL사와는 KT-1 착륙장치 OEM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삼성전자(주)는 해외 Agent/Consultant와 상담 및 계약, 국제 무기 딜러와 사업협의를 통해 생산 품목 약 20여건에 대해 견적서 요청을 받았으며 향후 유럽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의 군 및 경찰을 대상으로 수출협상을 하고 있다. 한국 로스트웍스는 향후 사업확대를 위해 세계 우수업체와 기술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약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파리에어쇼를 통한 최대의 성과는 한국관 구성을 통한 일체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의 선진기술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본격적인 유럽수출이 기대된다.